

치솟는 사료값에 축산농 '한숨'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 소값은 계속 떨어지는데다, 자고 나면 사료값이 올라 이러다간 가축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올해 두차례 인상에 이어 8월에 또 사료값이 오른다는 소문이 나돌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한우 1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규철(61·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이화농장)씨는 “불과 1년 새에 한달 사료값만 100만원이 올랐다”면서 “사육비용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배합 사료값이 너무 올라 본전이나 건질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지난해부터 옥수수·밀 등 국제 곡물값이 치솟으면서 국내 배합사료값도 천정부지로 올라 축산농가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11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배합사료 원료의 절반을 차지하

국제 곡물류값 급등 영향 최근 20%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산지소값은 폭락

는 옥수수의 경우 국제 거래값이 지난 2003년 t당 120~125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급등, 지난해 180~185달러에 이어 올 6월말 현재 23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국제 옥수수값이 상승하자 국내 배합사료 제조업체들은 원료비 상승분을 반영,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2월과 5월 세차례에 걸쳐 사료값을 20% 가량 인상했다.

소 배합사료는 지난해 6월 25kg 한포대에 6천500원에서 올 6월 7천500원(15.4%), 돼지 배합사료는 8천500원에서 9천200원(8.2%)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산지소값은 폭락했다. 올 초 550만원에 육박하던 600kg 암소한우는 6월말 현재 18% 떨어진 4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씨는 “계속된 시장개방 확대로 소값이 하락하고 있고, 가축질병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값까지 인상돼 축산농가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농가들이 ‘밥 먹었느냐’는 말 대신에 ‘사료값 괜찮냐’고 인사말을 주고받을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돈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순에서 돼지 1천여마리를 키우는 김도

(45)씨는 한달 사료비로 2천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말보다 월 500만원 가량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김씨는 “25kg당 사료값이 1월에 750원, 5월에 500원 인상됐기 때문”이라며 “올 하반기에 사료값이 또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적자 경영으로 인해 폐업하는 농가도 상당수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한미 FTA 보상책으로 정부가 송아지값이 15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3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220만~230만원에 거래되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피부에 와닿는 실질보상 ▲사료값 지원 ▲사육비 등 경영비용 저리용자 ▲대체사료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주하우징’에 가면 강진청자가 있습니다

11일 광주 서구 광천동 ‘대주하우징갤러리’를 찾은 시민들이 1층에 마련된 강진 청자문화전시장을 둘러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고려청자 재현품을 비롯, 강진에서 활동중인 작가들의 작품 등이 선보이며, 오는 8월31일까지 계속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령화 시대 건강보장 지출 요인 계속 증가 “전보료 2015년까지 8%대로 올려야”

복지부 미래전략위 제안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장 지출요인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강보장 재정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수거제 개편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충봉 한림대 교수)는

11일 ‘건강보장 30년 성과와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 자료에서 건강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장 체계의 체질개편이 시급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미래전략위는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高) 품질 건강보험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난 2월 출범시킨 민간전문가

중심 기구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2005년 48조원에서 2015년에는 164조원으로 증가하고 보장률 목표를 70%로 할 경우 건강보장 지출은 2005년 21조원에서 2015년에는 8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회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대응수준, 의학기술 발달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으로 건강보장 지출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을 현재 4.77%에서 2015년에는 8.13%까지 올리고 현재 연 3조원 수준인 국고지원액도 13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은행 CD기 이체·인출한도 축소

금감위 ‘금융사기피해’ 대책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1일 계좌 이체와 현금 인출한도가 줄어든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진다.

금감위(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자동화기기 1일 이체와 인출한도는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이며 저축은행의 1일 이체와 인출한도가 1억5천만원, 700만원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은행 자동화기기 1일 인출 한도가 1천달러(약 92만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화기기의 이용 가능액은

매우 크다”며 “금융사기나 카드 도난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한도를 축소하되 외국인만 적용하면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어 내외국인 모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은행고객의 자동화기기 이용금액 실태를 파악한 뒤 이용한도의 축소범위를 결정하고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회사는 해당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은행 등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의한 금융사기 급증함에 따라 체류기간과 목적 등을 감안해 개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개선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협 광주지역본부 상무광장지점 개점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지난 10일 서구 상무지구에 상무광장지점(지점장 박동현)을 신설했다.

상무광장지점은 주상복합건물인

로잔티움파크 1층(110평)에 입주했으며, 광주시청 등 관공서와 개인고객을 주타깃으로 영업에 돌입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전주인 서구청장, 남세기 한국은행 호남본부장, 장관수 서부교육장, 신성수 농협광주본부장 등 관내 기관장과 고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소공동 브랜드 홍보 참여업체 모집

광주·전남 중기청 18일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준근)은 오는 18일까지 ‘2007년 하반기 중소기업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홍보지원사업은 TV·신문 등을 통해 공동상표를 홍보,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고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참여자격은 중소기업청이 개발지원한 공동상표 외에 자율적으로 개발·사용하는 상표도 지원요건을 구비하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gj.smba.go.kr)의 판로지원사업 분야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 박삼구 회장 해외 경영 활발

3주 연속 출장 사업영역 확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3주 연속 해외출장을 강행하면서 현장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11일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최근 리비아, 베트남 등 중동과 동남아시아 사업장을 둘러보고 그룹 계열사가 가장 많이 진출해있는 중국도 방문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25일 리비아 출장에서 대우건설 현장을 방문해 바그다드 마흐무디 리비아 수상을 만나고 30일 귀국했다.

그는 이후 하루만 쉬고 지난 2일 베트남 2박 3일 출장을 다녀왔으며, 지난 10일에는 중국 베이징



으로 떠나 빠른 일정을 소화한 뒤 바로 다음날인 11일 돌아왔다.

박 회장의 이번 베이징 방문은 한중우호협 회장으로서 중국측 파트너인 중한우호협회와 협조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오는 27일에는 창춘 금호타이어 공장 준공식 참석차 또다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처럼 박 회장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해외 출장을 감행하는 이유는 지난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그룹 사업영역이 중동과 동남아 그리고 중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웰팜 ‘비타하임’ 출시

비타민 수입업체 웰팜(www.wellfarm.co.kr)은 최근 물에 녹여 마시는 비타민C ‘비타하임’을 출시했다.

독일 제약회사 뉴트리노에서 직수입한 비타하임은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정제를 물에 녹여 바로 마실 수 있어 체내 흡수가 빠르고 무설탕, 무카페인, 무방부제인 웰팜비타하임이다. 전국 1만8천여개 약국에서 1개(20정)당 3천500원에 판매된다.

최경호기자 choice@

이타리가구 전문점

30% Off SALE

1년 딱 한번 7월 19일까지

www.hongpa.com

광주광역시 동구 동성로47길 구도상점

0621-225-7567

한내갈업에발 선두기업+다들바이오펜

감염예방기기 렌탈사업 개시!

1년에 한번은 귀중한 내집의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적 우수

수다들바이오펜

0621-531-2811

011-9618-5258